

존경하는 스승

윤은기 (예 중위, 학사 70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청년장교 시절 훌륭한 장군을 모시면서 국가관 애국심 인생관을 새롭게 배웠고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존경받고 사는 것보다 존경할 인물이 있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20대에 깨달았으니 저로서는 크나큰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김동호장군님(공사2기)은 전투기 조종사로 조국의 영광을 지켰고 주영국대사관 무관, 사관학교 부교장, 제5전술공수비행단장, 한미연합사 초대정보참모부장 겸 군사정전위원회 한국측 수석대표, 공군작전참모부장등을 역임하시면서 국방안보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전역후에는 군사외교활동과 군사연구에 매진하셨습니다.

영어 일어에 능통하시고 유도 검도 유도사이며 서예에도 조예가 깊은 문무겸비, 지적체를 모두 갖춘 훌륭한 리더이십니다. 늘 정의롭게 선공후사 정신으로 임하셨고 후배나 부하들의 인격을 존중하셨습니다.

저는 군복무 시절 대부분을 김장군님을 모시며 역사의 현장에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전역 후에서 평생 스승으로 모시며 배우고 있습니다.

한때 큰 지위와 명성을 지닌 분도 인생 후반기에 무너지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김장군님은 변함없는 마음과 품격으로 모든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할 때 김장군님과 함께 찍은 사진액자를 원장

집무실 책상 옆에 걸어두고 근무했습니다. 늘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며 결심하고 결정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 시절에는 초대사령관 존 베시 대장으로 부터 한미연합사의 모범장군으로 칭찬을 받으셨고 전역 후 군사연구업무를 하실 때는 전쟁기념관 백선엽장군 사무실 옆방을 쓰시며 백장군님을 보필하셨는데 백장군님은 한국군에 이렇게 실력과 인품을 모두 갖춘 장군이 있다는게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탁월한 분이십니다.

제 인생이 달라진 것은 공군에서 김장군님을 만나 새로운 안목이 생기고 선공후사의 인생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역후 연구소장, 방송인, 교육자, 대학총장, 공직자로 살아오면서도 공군과 김장군님에게 배운 것을 나라에 갚기위해 노력했습니다. 공군부대 강의, 공군홍보, 공군대학 명예교수, 공군본부 정책자문위원장, 공군학사장 교회 지도위의장, 공군전우회 자문위원등으로 늘 공군과 함께해 왔고 육군협회 부회장, 육사자문위원, 합참자문위원, 해병대발전자문위원등으로 늘 국군을 응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김장군님을 찾아뵙고 신년인사를 드렸습니다. 현역 시절부터 공군전우회를 통한 수십년의 여러 활동을 되돌아보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뵈기만 해도 마음가짐을 바로하게 됩니다.

평생 존경할 스승이 계시고 평생 응원할 대한민국 국군이 있고 대를 이어 사랑할 조국이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 존 메이(John C. May) 회장이 맡았다. '존 디어 트랙터'로 유명한 바로 그 회사이며 1837년 창업자 존 디어(John Deere)가 미국의 넓은 초원을 쉽게 경작할 수 있는 철제 농기구를 발명하면서 세운 회사다. 디어는 미국계 중장비·농기계 제조회사로 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디어가 CES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9년인데 그 당시에도 농기계회사가 CES에 나타난 것 자체가 큰 화제였다. 그 후 이 회사는 CES에 단골처럼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를 전시하고 시승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다. 몇몇 언론에서는 농업계의 테슬라(미국 전기차 업체)를 뜻하는 '농슬라'라는 별명으로 디어를 불렀다.

디어는 올해 CES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메이 회장은 "예전에는 크고 힘이 좋은 농기계가 전부였지만 현재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종자가 있는 곳에만 비료를 뿌리는 신기술 '이그젝트샷

(Exact Shot)'을 선보였으며 이 기술은 파종기의 비료 사용을 기존 대비 6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디어는 혁신을 위해 최근 5년 동안 약 7조원을 들여 여러 스타트업들을 인수했다. 농기계회사이지만 정보통신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 스타트업 '베어플래그로보틱스', 비전AI(시각 인공지능)분야 전문 스타트업 '라이트' 등을 인수하며 기술력을 보강했다. 특히 이번 CES에서 선보인 잡초가 있는 곳에만 살충제를 뿌리는 '시엔 스프레이(See and Spray)' 기술로 유명한 '블루리버테크놀로지'를 인수하여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농업계에서 모범적인 인수 사례로 꼽힌다. 이렇게 해서 디어는 탄탄한 수요와 원자재 가격 하락을 기반으로 실적 전망을 높이며 전 세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CES 2023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활약이 크게 돋보였지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아직도 절실하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길 바란다.//

팔만대장경과 김영환 전투기 조종사

전대길 (병176기, (주)동양EMS 대표이사,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어느 고승(高僧)의 법문(法文)이다.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260자로 줄인 게 '반야심경(般若心經)'이다. 5자로 줄이면 '일체

유심조(一切唯心造)다.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1자로 줄이면 '마음 심(心)자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마음(心)'이 바로 '불교(佛敎) 경전(經典)이다.

'대장경(大藏經)'은 '팔만사천법문'이란 뜻이다.

경판(經板)은 모두 81,258판(板)이며 글자는 52,000,000자다. 경남 합천 해인사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다. 고려 고종 때 15년간(1236년~1251) 몽골군의 외침(外侵)을 부처님 가피(加被)로 막기 위해 만든 팔만대장경은 60% 이상이 산벚나무로 만들어졌다. 석가모니의 설교를 기록한 경장(經藏), 율장(律藏) 그리고 불제자들의 논설을 모은 논장(論藏)을 망라했다.

6·25 전쟁 기간 중인 1951년 12월 18일, 북한 인민군 은거지인 합천 해인사를 폭파하라는 미 연합군사령부의 작전명령이 떨어졌다.

김영환 편대장(대령/1921~1954)은 네이팜탄(Napalm)과 로켓탄을 4대의 전투기에 장착하고 있었다.

벤젠, 파라핀, 셀룰로이드 따위의 불이 잘 붙는 기름으로 만들어진 소이탄(燒夷彈)의 일종으로 살상력이 뛰어난 네이팜탄은 단 한 개만 투하해도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은 순식간에 축대밭으로 변해 버릴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김영환 편대장은 미 연합사령관의 해인사 폭파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다. 해인사와 똑 떨어진 곳에 기관총만을 발사했다. 해인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당시 가야산 일대에 있던 인민군 낙오병과 유격대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6·25 전쟁 당시 가야산(伽倻山) 일대에는 인민군 유격대가 있었다. 당시 해인사

주지 효당 스님은 유격대 지도부와 담판을 통해 "당신들이 이곳에 있으면 미군에게 찬란한 민족문화의 보고인 해인사를 폭파할 빌미를 주는 것이니 떠나 달라"고 했다. 그리고 난 후 인민군 유격대는 얼마간의 양식을 얻어서 해인사를 떠났다고 효당 스님은 증언했다.

6·25 전쟁 중 전시 작전권이 없는 대한민국 국군으로서는 미군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즉결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항명(抗命)이었다. 작전명령을 거부하고 해인사와 대장경을 지킨 영웅은 당시 31세의 김영환 장군(당시 대령)이다.

합천 해인사와 대한불교 조계종은 1997년 장경판전 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김영환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 2002년 6월 해인사 입구에 김영환 장군 공적비를 세웠다.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의 유래다.

김영환 전투기 조종사가 형수를 만나러 갔다가 형수의 붉은 색 치마를 보고 "그 치마 천이 남았으면 내 마후라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전투기 조종사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라면서 형수의 치마를 가위로 잘라 갔다는 게 실화(實話)다.

조선일보(2023.2.18. B2면) 인터뷰 기사에서 6·25 전쟁 때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했던 김두만 총장(96세, 1927년생)이 역사적 사실을 밝혔다.

"1954년 3월 5일, 대한민국 김정렬 초대 공군참모총장 동생인 김영환 장군이 제 10전투비행단 창설 행사에 경남 사천에서 F-51D 전투기를 몰고 강릉으로 이동 중 갑작스런 악천후로 인해서 교신두절과 함께 묵호 하늘에서 산화(散華)했다."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공군 출신으로서 김영환 장군이 한 줌 잿더미가 될 뻔한 UNESCO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구해낸 역사적 진실과 전투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가 김영환 장군에게서 유래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미국 최대 가전쇼(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황태인 (예 중위, 학사 70기, (주)토브넷회장)



매년 1월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 1월의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사람과 돈, 기술이 모여 새로운 트렌드를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박람회(CES)가 열리기 때문이다. CES는 그 해 펼쳐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나침반'으로 일컬어지며, 해마다 수백 개에 달하는 혁신기업이 선정된다.

CES 2023의 화두는 '초연결(Super Connectivity)과 모빌리티(Mobility)'였다. 다시 말해 "초연결, 모빌리티 변화에 빠져들어라(Be in it)"였다. 올해는 완성차 업체와 차량 부품업체는 물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까지 모빌리티를 화두로 내놓았다. 또한 전 세계적 흐름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따른 탄소 중립과 친환경을 위한 기술을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2023 CES에선 한국 참가 기업이 550개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보다 10%이상 늘었고 5년전에 비해서는 160% 이상 증가했다. CES 혁신상도 많이

받았다. 499건의 혁신상 제품과 기술 중 약 28%인 141건을 한국 기업이 차지했다.

2023 CES 핵심 키워드는 '경험'으로,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전시 주제를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 시대(Bringing Calm to Our Connected World)'로 정하고, 전시관 공간도 관람객들이 단순히 제품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하나같이 짠 것처럼 자율주행을 비롯해 자율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선 보였다. 행사 기간에 다녀간 인원만도 11만5000여명으로 집계되어 일상을 되찾은 분위기였다.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필자가 매년 기대를 모으는 것은 내로라하는 스타트업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면서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독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1948년에 세워졌으나, 여러 번의 전쟁을 겪어내며 인구 900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소득이 5만달러가 넘는 것은 강력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올해 기조연설은 세계 최대 농기계회사인 '디어앤드컴퍼니(Deere, 디어)'의 CEO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대한민국 공군 보라매와 젊은이들 특히 MZ세대 젊은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적 진실이 청소년 학교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에 실리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참 좋겠다.

필자가 공군 작전병으로 복무(1968~1972)할 때 만났던 공군 전투기 조종사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다. 1969년 필자가 서울 상도동 장승박이에 있는 공직자전학교 김필정 교장(공군대령, 전투기 조종사, 조종 간부 1기, 서울공대 재학 중 자원입대)을 모시고 일할 때 직접 들었다.

“6·25전쟁 당시 참전, 무스탕 전투기 조종사로 평양 상공에서 맨손으로 폭탄을 투하해서 대동강 철교를 폭파했던 그 순간이 참으로 슬펐다”고 말씀하셨다. 김필정 AGOS 교장님 임종 직전에 필자의 팔씨를

빼서 그분의 손목에 채워드렸다.

그리고 전형일(전투기 조종사, 조종 간부 1기) 대한민국 공군 작전사령부 장군을 비롯한 왕현식, 손만화, 강신구(영화배우 강신성일 형), 이병욱, 정함채, 김종무, 오승환(이웅평 귀순 조종사처럼 북한에서 귀순), 김두선, 강영식, 이강운, 최용호, 이인영, 정용택, 손동희 공군 빨간 마후라 전투기 조종사 여러분과 서울, 오산, 월남 사이공, 나트랑에서 같이 일했던 옛날이 그립기만 하다.

삼일절 104주년을 맞는 2023년 3월1일 아침이다. 조국을 수호(守護)하다 돌아가신 순국선열(殉國先烈)과 호국영령(護國英靈)의 명복(冥福)을 빈다. 조국 하늘을 지키다 산화(散華)한 수많은 전투기 조종사와 진짜 사나이 김영환 전투기 조종사에게 합장(合掌)한다.//

고향이라는 흙속에 묻혀 살고 있는 애뜻한 추억의 이야기들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설 명절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유독 이번 설날은 참으로 지루했다. 다른 날과 달리 시간도 빨리 가지 않는 것 같았다.

명절이면 설을 쇠러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부모님이 다 승천하신 이후, 이제 그 고향마저 잃어버린 나그네가 되어버렸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향집을 그려본다. 가슴이 찡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더구나 지난 추석 때 장모님마저 하늘나라로 떠나시면서 그나마 세배를 할 어르신도 없다. TV를 봐도 설 기분이 나지를 않는다.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어두운 경제 탓도 있겠지만, 정치계가 원만하지 않다보니 삶의 수준 향상을 실감하기 어렵다. 불안하다. 그런데도 여의도에서는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목소리만 크게 들려온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처럼 어둡고 무거운 생각을 하는 것은 경기 침체야 어쩔 수 없더라도, 정치마저 지나친 문화전쟁으로 적지 않은 국민에게 불만과 상실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그렇다.

필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로 본다. 그래서 공동체의 규범과 질서를 제공해야 할 정치가 희망을 안겨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만과 상실감,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리라.

누구든 산(生)사람은 살아간다.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생각하지 않아도 살아간다. 조금 늦게 출발하면서,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그대로 살아간다. 고평이가 필 때까지 꺼지지 않은 생각에 발목이 잡혀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흔들리면서 살아간다. 다시 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살아있으니 간다. 살아있으면서 살고 있다.

때로는 생각을 품은 채 잠이 들고, 때로는 생각을 끌어안은 채 살아간다. 살아있으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딘가로 간다. 그렇게 혼자가 되어 어디론가 간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별인데, 이별의 아픔을 아는 데, 왜 우리는 사랑으로만 살다갈 수 없을까.

계묘년 들어서면서 벌써 5곳의 상가(喪家)를 찾았다. ‘백년인생’이라 했는데, 모두가 90을 넘긴 어르신들이다. 말들은 호상(好喪)이라고 하지만 정말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곡(哭)소리도 없어졌다. 검은 상복만 입었을 뿐 잔치 집과 다를 바 없었다.

요즘 달라진 추세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입원하셨다. 돌아가신다는 것이다. 얼핏 옛날 ‘고려장’을 연상시킨다. 어머니와 장모님도 예외 없이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다.

생각해보면 요양원에 입원한 분들이 걸어서 퇴원을 한 어르신들이 없다. 대부분 2년 정도 되면 모두 돌아가신다.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대기 장소에 불과하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밤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어머니, 장모님의 독백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정신이 맑으면 뭐하나 손주 자식만 보고 프지.” “욕심이 있다면 하늘에 다다라서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아무런 고장 없이 웃으며 갔으면 좋겠는데, 이 한 몸 오랫동안 내 것인양 잘 쓰고 있지만, 사는 동안만이라도 병 탈 없이 잘 쓰고, 돌려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쓴 화살 같다 하였건만 할 일 없고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 한탄만 하게 되는구나. 아들 딸, 손자 자식들 유명인사면 무엇 하리오.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으니,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도 보람으로 생각하며, 키워본들 무엇하리오. 결국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들이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맡겨 있는 것을, 인생의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나, 종착역의 빛은 많은데, 함께 동행할 빛은 없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늘 뵈을 때마다 자식들 걱정만 하시며 “난 잘 있다”고 하시던 어머니와 장모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생각할수록 가슴이 메어져 온다.

‘육십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칠십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 ~ 구십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백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時)에 간다고 전해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다. 많이 들었던 가사다. ‘다음’을 썼더니 이애란 가수가 부른 ‘백세인생’이다.

흔히 노인들의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이제 살만큼 살았다”라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가사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 있다. ‘죽어 천당 가는 것보다, 이승에 살아있는 게 더 좋다’라는 말도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꾸준히 늘어나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5세, 여자는 86.5세다.

즉 2020년 태어난 아이가 86세 이전에 사망하면 조기 사망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다. 30~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60세가 되면 동네에서 환갑잔치를 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수명 연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개선이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수명연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부분은 치과다. 과거에는 늙으면 치아부터 빠져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를 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틀니 등으로 음식을 고르게 씹을 수 있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수명이 연장되어 지금보다 더 오래 살게 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수명연장에 따른 미래의 모습은 문제가 없을까?

필자의 견해로는 무조건적인 수명 연장이 반드시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본다. 수명연장에 좋지만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되어야 한다.

얼마 전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우의 말이 떠오른다.

섬망증과 만우절

김완용 (예 준위, 준사관 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4월 1일은 어머니 기일이라 고향의 큰조카 집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날이다.

어머님이 저세상으로 가시던 날에 전주의 종합병원 영안실 뒷마당에는 왕벚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그 화창한 봄날을 두고 어머니는 떠나셨다. 그날 떠나신 어머니를 만나러 묘지가 있는 산을 먼저 돌아보기 위하여 아침 일찍 제물을 챙겨 집을 나섰다.

차창 밖으로 따라오는 봄바람은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다독이며 힘들게 피어난 노란 민들레와 개나리 꽃잎을 흔들고 있었다. 가로수 왕벚나무들은 통통히 부풀어 오른 붉은 꽃망울에 봄 햇살을 담으며 화려한 꽃잎을 만들고 있었다.

예년에 비해 조금 늦기는 했으나 꽃피는 세월은 누가 오라 하지 않아도 분명히 오고 있었다.

새 생명들이 다투어 일어서는 산과 들녘을 바라보며 고속도로를 1시간정도 달렸을 때였다.

카폰이 실내의 좁은 공간을 황망히 뒤흔들며 요란하게 울렸다.

걸려온 전화는 군대시절 가깝게 모셨던 이xx선배님이었다. 정년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물으며 살던 사이라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다.

“와룡씨 잘 계시오?”

“네! 선배님! 웬일이세요? 코로나 시절에 건강은 좋으세요?”

“나 지금 죽었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해요? ㅎㅎㅎ”

나는 오늘이 만우절이라 이 선배님이 놀려주려는 심산으로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심각한 목소리는 카폰을 통해 계속 들려왔다.

“내가 코로나에 걸려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죽어서 유골함이 대전 현충원으로 갔어. 지금 사망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와룡씨가 대전현충원 봉안실(奉安室)에 내 유골이 도착했는지 좀 알아봐 줘!”

“병원에서 어찌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했

다고 오진하고, 다른 사람의 유해를 둔갑시켜 화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나 오늘 xxx병원에서 MRI촬영을 했는데, 뇌에 피는 고이지 않고 찾아들어 이제 요양병원에서 통원치료 하래.”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여하튼 오늘 고향에 내려가니까 월요일에 현충원에 들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꿈속 같은 전화내용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황설수설 있을 수도 없는 말들을 하는 이 선배님의 목소리는 너무 진지했고, 만우절 장난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이 선배의 주변에 함께 사는 강xx선배에게 전화를 했다. 이선배가 자기는 이미 죽었다고 전화를 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강 선배는 껄껄 웃으며 그간의 정황을 알려주었다.

이 선배는 구정 무렵에 뇌경색으로 스톱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나 섬망증세가 있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었다. 요즘 심한 섬망증세를 보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대학병원으로 통원치료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이 선배님의 간곡한 사정의 전화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스쳐간 시간의 흔적을 따라 뒤돌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에도 등급을 나누듯 더 정다웠던 사람들이 있다.

내 기준 안에 상위 등급의 사람이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들은 추억이란 우물을 파놓고 유령처럼 가끔 나를 우물 속으로 불러들이기도 한다.

이 선배는 공군의 전설이었다. 공군 부사관4기로 입대하여 공군본부에서 역대 많은 총장들을 직접 모시면서 정년퇴직하는 날까지 열심히 군대생활을 하신 분이다.

평소에 강직하고, 부지런하며, 후배들의 우상이기도 했던 선배가 팔십 중반의 나이에 병마에 시달리며 그래도 가끔 생각나는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헛소리라도 한다고 생각하니 인생길은 새옹지마며 무정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이 만우절이다. 거짓말 같은 선배님의 병환이 빠른 시일 안에 쾌유되기를 기원한다.//

“지금 나는 두 개의 고통을 받고 있다. 하나는 내 육신의 고통이고, 또 하나는 자식도 어렵게 사는 데 내가 병들어 병원비까지 부담을 시키는 게 고통스럽다.”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언젠가는 머지않은 때에 새로운 세대에 게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한다. 또한 그런 시간은 한정되어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으로 사느라고, 아까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수명연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 게 오히려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즘 들어 내 영정사진 앞에 있는 조문객이 무슨 생각을 갖고 애도(哀悼)하는 가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다.

기왕지사 이 세상을 살았으면, “참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이었지.” 소리는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고향 집.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만 늙는 것이 아니라 고향도 늙는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손수 만든 화단. 그 옆에서 동네 꼬마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던 아버지. 궁중요리가로 휴일이면 동네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눠 주시던 어머니. 밥 짓느라 매캐한 연기가 피어나는 부엌 아궁이. 동근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던 식구들, 그리고 고향의 코 흘리게 베틀, 모두가 생각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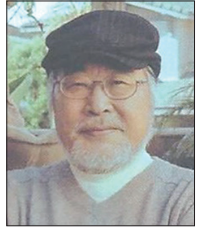
훨씬 더 많은 존재와 애뜻한 추억의 이야기들이 고향이라는 흙속에 묻혀 살고 있다. 뒤뜰, 소나무 꼭대기위에 새 동지가 떠오르며 그리움을 더해준다.

지금은 없어진 고향집이 자꾸 눈에 가물 거린다. 고향이 외롭지 않게 해야겠는데, 아무도 없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 나도 늙어가는가 보다.//

우크라이나에 영광을!

박평서 (박정린, 예 대위, 학사 53기)

일찍이 1956년 김춘수 시인은 소련의 탄환에 희생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의 13세 소녀의 죽음을 애통해 하였었고 그리고 그후 1968년 체코가 ‘프라하의 봄’을 영원한지 이십여년 지나서야 겨우 자유를 찾은 그 긴 투쟁역사에 또 감격하였거늘 2022년 우크라이나의 이른 봄날, 우리는 러시아군 탱크와 미사일 침공에 처참히 짓밟혀진 시민들 속에서 수많은 꽃봉오리의 주검을 또다시 목격한다.



오로지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해 그들은 화염병과 총을 들고 몇십배나 강한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드넓은 평원에서 해바라기꽃 활짝 피어 노랑물결 출렁거릴 그 날은 언제이며, 수도 ‘키이우’의 광장에서 그들의 국가 구절처럼 ‘우크라이나의 영광과 자유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해방을 맞은 뜨거운 눈물의 합창을 할 수 있는 그 날은 진정 언제인가.

아, 그곳의 봄날 이 계절에도 아직 풍전등화의 불안한 우크라이나에 우리들 간절히 부르짖노니 Slava Ukraini(슬라바 우크라이니)! 부디 부디 영광 있을지어다.//

그대가 보여주세요

이영하 (예 중장, 공사 22기, 전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

나를 스쳐 가는 모든 주위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어 세상 살맛을 더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그대가 보여주세요.



천만 불짜리 미소천사가 되어 정감넘치는 말과 사랑으로 하늘의 조각구름과 낭만의 높새바람과 맑은 시냇물까지 짝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그대가 보여주세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통찰력으로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 내가 시어를 못 찾아 헤매고 있을 때 단숨에 최적의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을 그대가 보여주세요.

인생 주춧돌인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상처투성이인 삶이라 해도 그것으로부터 용기와 의지를 북돋아 내어 인생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그런 멋진 사람을 그대가 보여주세요.//



광주지부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은 3월22일 제 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 지부

장은 “공군홍보와 제1전투비행단의 임무수행을 위해 예비역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제1전투비행단장 이태규 준장은 “공군 예비역 복지증진과 공군전우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상호 유대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특히, 이 단장은 올해 하반기에 예비역 초청행사를 개최하여 공군가족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지부



대구지부(지부장 남상석)는 3월 21일 제40차 정기총회를 시내 아현정 웨딩식당에서 회원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공로상 및 감사장 수여에 이어 보라매 장학재단에서 회원 격려품과 대구기지 현역부사관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 지부장은 “회원들간 친목을 도모하고 전역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젊은 회원의

가입을 독려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사천지회



사천지회(지회장 박갑용)는 3월 23일 지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

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박 지회장, 이윤식 홍보이사, 송재웅 조직국장에게 중앙회장의 공로상 전수가 있던 후 2022년도 결산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박 지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잃어버린 3년을 빨리 되찾기를 기대하며, 향후 회원배가운동 전개로 조직력강화는 물론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지회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지회



서산지회(지회장 홍만진)는 지회장의 3명이 신년 및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19일 20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신임 단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축하난과 함께 장병들을 위한 격려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부대와 서산지회가 더욱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대담을 나누었다.//

성남지회



성남지회(지회장 박문석)는 1월 16일 시

내 음식점에서 지회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박 지회장은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회 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3월28일 1/4분기 정기모임에는 정수 지회 고문 등 약 20여명이 참석하여 회원들과의 우의를 돈독히 했다.//

양평지회



행사는 김 지회장의 인사, 참석회원 소개, 중앙회 소식, 2023년 주요행사 일정, 회원 애로사항 청취 등 만찬을 함께하며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말부터 코로나로 중단됐던 행사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회원님들과 함께 어울릴수 있게되어 기쁘다”며, “올해도 임원진과 함께 지회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3월 20일에는 원로회원 6명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맹무열(공사7), 이홍우(공12), 이지훈(공사20),김상렬(병87), 고건덕(병292), 김영태 양평군 부군수(병365)가 참석했다.//

양평지회(지회장 김수영)는 2월 14일 지 회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첫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전주지회



전주지회는 1월 30일 지회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지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정호영 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22년도 결산안 및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한 후, 지회에서 마련한 정 지회장의 임기중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신임 조수근 지회장은 취임인사말을 통해 “역대 지회장님들의 업적을 토대로 지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회원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부



제주지부(지부장 좌중언)는 2월 14일 지부 사무실에서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공군전우회’라는 슬로건으로 2023년도 정

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유공회원 3명에 대한 중앙회장 공로상을 전수했다. 좌 지부장은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협조와 도움 그리고 지부 발전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부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천지회



화천지회(지회장 김철준)는 3월 12일 화

천지회 주관으로 화천군 봉어섬에서 3군(해군, 해병대, 공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족구대회에서는 해병대 전우회, 해군동지회, 화천지회가 각각 1,2,3위를 차지하여 시상식을 가졌으며, 행사종료전 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실시하는 등 3군 전우간 친목을 다졌다.//